

# 케냐의 민주주의

글 · 김광수 afrikaans@hanmail.net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상황은 부족주의(tribalism)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의 바탕은 식민통치가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종족 또는 부족으로 구성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종적 긴장은 항상 부도덕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인종정치’는 특히 케냐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잡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방법으로 사용되었고 정치적 불안과 동요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케냐의 정치적 소요와 불안정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 부족적, 인종적 분쟁이 원인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할 듯 하다. 이러한 시각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이룬지 40여년이 이미 지나고 있고 정치 지도자와 국민들의 역량에 따라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탄자니아나 보츠와나와 같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케냐의 정치 상황은 다른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서구 식민주의에 항거하며 독립운동을 벌였던 1세대 정치 지도자들이 장기집권을 피하면서 독재와 부패로 이어져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케냐의 정치 지도자들은 장기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족 사이의 갈등을 이용함으로써 케냐의 민주주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우리가 케냐의 정치 상황에서 그동안 보아온 것은 민주주의 선거가 언제나 인종적 분쟁으로 귀결되는 것이었다.

2007년 12월 치러진 선거에서 무와이 키바키(Mwai Kibaki)는 오렌지민주주의운동(Orange Democratic Movement; ODM)을 이끄는 라일라 오딩가에게 분명히 패배하였으나 부정행위를 통하여 대통령직을 훔쳤다. 오랜 기간 동안 독재타도와 민주주의 발전을



케냐의 국회의사당과 시내 전경

위해 투쟁하였던 키바키의 행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 분명한 것은 케냐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정권 획득을 위해 인종적 긴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케냐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시험받는 상황이었다.

## 케냐의 정치 역사

아프리카를 분할한 1885년 베를린 회의 결과 1888년 영국은 현재의 케냐로 알려진 지역을 식민지화하였다. 영국령 동아프리카에 속한 현재의 케냐는 20세기에 들어와 약 3만 명의 백인들이 나이로비가 위치한 ‘고지대’에 정착하여 커피와 차를 재배하였다. 백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한 고지대는 전통적으로 키쿠유족의 고향이었으며 백인들의 침입으로 키쿠유족들은 땅을 빼앗기고 백인 농장에서 임금노동자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1952년 키쿠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마우 마우 반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영국의 강력한 진압으로 1956년 마우 마우단의 지도자인 데단 키마티가 생포됨으로서 반란은 진압되었다. 이후 영국 식민정부는 키쿠유족과 루오족이 단결하자 식민통치에 저항할 것을 염려하여 이 두 부족을 분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당연히 가장 먼저 백인들의 식민지배와 통치로 고통을 받았던 키쿠유족이 정치화되었다.

케냐에서 치러진 첫 번째 선거는 1957년 이었다. 영국인들이 희망하였던 ‘온건한’ 인물

대신에 케냐아프리카민족연합(Kenya African National Union; KANU)이 지지한 카리스마 넘치는 조모 케냐타가 당선되었고 1963년 독립하였다. 1978년 케냐타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한 이후 부통령인 칼렌진족 출신의 다니엘 아랍 모이가 대통령 직을 승계하자 그의 대통령직 승계에 대해 키쿠유 족 엘리트 집단인 키암부 마피아가 강경하게 반대하였다.

KANU는 1960년 키쿠유중앙연맹(Kikuyu Central Association)과 루오정치운동(Luo Political Movement)이 결합하여 창당한 이후 2002년 12월 27일 총선에서 패배하여 제1야당이 될 때까지 거의 40여 년 동안이나 여당으로서 정권을 유지하였다. 모이 대통령은 KANU 중심의 일당제 체제를 기반으로 반대 정치정당을 해산 시키고 그의 권력을 공고히 했다. 또한 소수종족인 칼렌진족 출신으로서 다수 족인 키쿠유족을 정권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1969년부터 1982년까지 케냐는 일당제 체제를 유지하였고 1991년 정치적 민주화와 복수정당제를 시행하라는 압력을 국내외적으로 받게 되었다.

케냐의 정치상황을 논의하면서 인종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평가는 케냐의 정치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케냐에서 다당제 정치체제의 출현은 부정과 폭력이라는 두 가지 화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는 정치에서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며 널리 퍼져 있는 것이었다. 모이 정권 하의 정치적 제도는 인종적 힘과 계급의 이익에 의해 지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케냐의 초대 대통령 조모 케냐타 상



1992년 12월 실시된 총선은 케냐 역사상 처음으로 복수 정당이 참여한 선거였다. 당시 선거를 전후로 주로 농촌 지역에서 폭동이 잇따르면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치적 이득을 노린 부패한 정치인들이 부족 사이의 비방전을 부추긴 탓이었다. 이후에도 수 차례 지방선거와 의회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혈충돌이 관례로 굳어졌다. 케냐타 정권 시절엔 그의 출신 부족인 키쿠유가, 모이 정권 시절엔 그의 출신 부족인 칼렌진이 '공분'의 대상이었다.

2002년과 2007년 선거에서 모이 대통령은 인종을 혼합하여 정당을 구성하고 소규모 인종집단이 각각의 정당을 구성하게 유도함으로써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인종집단에 근거한 군소정당의 분열은 KANU 집권여당을 패배시킬 수 없었다.

## 비민주적 정치 지도자



24년 동안 장기집권한 다니엘 아랍 모이(Daniel arap Moi) 대통령

케냐의 3천 8백만 인구는 40여개 인종집단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인종집단은 자신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 그리고 언어를 가지고 있다. 주요 인종집단은 키쿠유(Kikuyu : 22%), 루이아(Luhya : 14%), 루오(Luo : 13%), 칼렌진(Kalenjin : 12%) 및 캄바(Kamba : 11%), 키시(Kisi : 6%), 메루(Meru : 6%)족 등이다. 케냐의 인종집단은 과거 영국의 '분리하여 통치' 하는 전략과 독립 이후 정권 획득 과정에서 국가적 정체성보다는 부족적 정체성에 기반을 둔 정치행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의 민주주의 수용과 편협한 부족적, 민족적 정체성이 결합되어 케냐의 정치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오바마가 상원의원이었을 당시 케냐를 방문하고 아프리카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의 하나로 만연된 부패, 잘못된 지배구조와 정치적 리더십을 지적함으로써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개인적 문제의식과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케냐타는 영국 식민지 당국이 만든 키쿠유족 엘리트였고 모이는 24년 동안 독재정치를 한 사람이었으며 키바키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훔쳐 정권을 이어가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케냐의 정치적 상황은 식민주의 시기부터 축적된 비민주적 역사가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 2007년 대선과 정치적 소요



무와이 키바키(왼쪽)와 라일라 오딩가(오른쪽)

2007년 12월 27일 치러진 대선 결과를 놓고 키바키 대통령과 야당 후보 라일라 오딩가 지지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해 소요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여 2008년 1월 2일까지 400여명이 숨졌다. 군중과 피란민들이 대피한 교회에 불을 질러 50여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까지 벌어지는 등 곳곳이 무정부상태로 바뀌고 있었다. 키바키 대통령을 배출한 키쿠유족과 오딩가 후보가 속한 루오족의 분쟁으로 번져갈 조짐마저 보여 '제2의 르완다 사태'로 치달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100일 동안 80만 명이 희생된 르완다 대량학살 당시 후투족 방송국은 '투치족은 바퀴벌레, 바퀴벌레를 박멸하자'는 방송을 연일 내보냈다. 그 당시 케냐에서도 라디오 방송은 대량학살을 부추기는 선전도구로 사용되었다. 키쿠유족 언어로 방송되는 한 방송국은 "라일라 오딩가는 살인자고, 권력에 굽주려 있으며, 그가 속한 루오족은 게으르고 도둑질을 일삼는다" "서쪽에서 온 짐승들을 쳐 죽이자"는 내용이 담긴 노래를 방송했다.

루오족인 오딩가를 지지하는 방송국들도 "키바키 등 개코원숭이들을 몰아내자" "우리의 땅을 점령한 몽구스(사향고양이과의 동물)를 몰아내자" 등의 선동적 구호를 되풀이하여 방송하였다. 최종적으로 종족의 상호 학살로 인해 약 1천 3백명이 사망하고 3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CNN은 케냐 선거에서 후보들이 국민들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케냐의 인종적 정치적 문제를 비교적 정확히 바라보고 있다. 루오족인 오딩가의 ODM은 루이아족의 지원을 받았고 오딩가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만약 선거에서 승리

한다면 루이아족에서 부통령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키바키 정부는 2002년부터 부패와 정치적 추문으로 비난을 받아왔다. BBC 방송은 케냐의 정치적 소요사태에 대해 더 비판적이며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케냐에서 부족의 차이는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이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 케냐의 미래

키바키는 지난해 4월 초 야당 지도자인 오딩가와 대연정을 구성하여 폭력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왔지만 대연정은 내부적 논쟁, 부정부패 청산의 실패, 정치개혁의 지지부진함, 경제적 하락에 대한 무기력한 대책에 대해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총리는 오딩가가, 부통령은 오딩가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함으로써 ODM에서 오랜지민주주의운동-케냐(Orange Democratic Movement-Kenya: ODM-K)로 독립한 칼론조 무소요카가 맡았으며 부총리는 2명으로 키바키가 이끌고 있는 국민연합당(Party of National Unity: PNU)와 ODM이 균점하고 있다. 대연정의 권력분점 양상은 불안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언제든지 케냐가 종족사이의 대립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케냐에서 발생한 종족 폭력은 선거부정으로 야기되었으나 종족의 폭력을 종식시키는 궁극적인 방법은 선거 민주주의의 회복, 책임 있는 정치, 나아가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입법, 사법, 행정)가 존재하지 않는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선의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특히 21세기 이후 아프리카 연합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아프리카의 선정(good governance)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일반적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수준 만큼 민주화 되어있다고 정의할 수 있다.